

왜 같은 색을 보며 나라마다 다른 생각을 할까

색채의 연상

조영수 지음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응원에 나섰다. 이를 지켜 본 소설가 박완서는 "나처럼 평생을 빨강이 콤플렉스에 갇혀 산 세대에게는 붉은 색을 단지 역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기쁨의 색일 뿐이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마치 신인류의 등장처럼이나 눈부셨다"고 묘사했다.



선 까닭은 1970년대 초 미국 유학 때의 문화적 충격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수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에서 표현된 '회색'의 의미를 묻자 학생들은 '세련된', '우울한', '도회적인' 등으로 답했다. 저자가 최인훈의 '광장'을 읽으며 느꼈던 '애매한', '회색분자' 등과 너무 다른 표현이었다.

저자는 빨강과 파랑, 초록, 노랑, 회색, 분홍, 하양, 검정 등 8가지 색에 대한 어원과 나라별 문화적 차이, 관용어에 나타난 색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파랑은 '청년과 희망, 그리움'(한국), '바다와 행복'(일본)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울함'(미국)이나 '남성 동성애자'(옛 소련)를 뜻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기만과 위장, 거짓의 색깔이었다.

초록색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사람간의 차이가 크다. 16세기 중반 독일에서는 '신사다운 색'으로 여겼지만 프랑스에서는 '하인과 광대들이 입는 색'이었다. 영국에서는 '저주받은 색'으로 냉대를 받았다.

노랑은 당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상징이었으나 같은 시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우리와 다름'을 의미했다.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노란색 별 문양을 달도록 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은 몇 가지나 될까? '색채의 연상'은 왜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식당 종업원이 30%가량 팀을



색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의 문화에 의해 이뤄진다. 빨강에 대해 한국인은 '정열'을 떠올리지만 독일인은 '위험', 미국인은 '분노'를 연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광장을 매운 '붉은 악마' 응원단. <광주일보 DB>

더 받는지, 색의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치는 우리의 생활 속 색깔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시루·1만7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식물처럼 살기=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현대인을 위한 철학·인문 교양서. '식물처럼 살기'는 흔히 '동물처럼 살기'와 반대 개념으로 여겨져, 대강 어떤 내용의 책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다. 책은 단순히 '어떻게 살자'고 주장하며 답을 던지는 자기계발서는 아니다. 오랫동안 철학 연구와 강의를 해온 저자는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식물에 빗대어 친근하고 쉽게 접근하고자 애썼다. <사람의무늬·1만5000원>

▲경제철학의 전환=저성장과 장기 불황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정책을 제안하는 책이다. 저자 변양균은 지난 30년간 국가기획과 경제정책 분야에 서 쌓은 전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비전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초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슈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바다출판사·1만5000원>

▲리더십 모멘트='리더에게 결정은 운명이다'의 개정판.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에 처했던 리더들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과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더들이 어떤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찰력 있게 접근한다. 이를 통해 평범하게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익히 할 리더십과 리더가 갖춰야 할 원칙을 짚어 나간다. <페이퍼로드·1만8000원>

▲지구와 인류의 미래=현대 문명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새로운 미래 문명 보고서. 문명의 발달이 인



류의 생활권의 공간적으로 확대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생활권의 확대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생활권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면 문명의 발달은 막다른 벽에 부딪히고 경제는 침체된다. 현대의 소비 문명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지 않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의 문제제기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문학사상·1만6000원>

▲자기계발과 PR의 선구자들=자기계발과 생존 경쟁의 치열함을 정비해왔지만, 자기계발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특히 자기계발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과 비난 일변도다. 이 책은 자기계발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책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자기계발 전문가들의 주장과 삶을 기록하고 중립적 평가를 내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책에서 다른 인물들은 조지 칼렛, 데이비드 오길비, 에드워드 베네이스, 앤드루 카네기 등 모두 10명이다. <인문과사상사·1만5000원>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장과 치유에 관한 기록

트라우마 치유,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다

윤인모 지음

우울증, 정서불안, 강박증, 콤플렉스, 공황장애... 현대인들은 저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정신적 좌절을 겪으며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무심코 넘겨버리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큰 짐이 되어 일상 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게 되는 일까지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온다.



"나의 오래된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심리 치유자 윤인모에게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다. 그가 펴낸 '트라우마 치유,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다'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장과 치유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심리치료를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병적 증상을 탐구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남자친구를 같은 무용단 단원인 친구에게 잃은 뒤로 두 눈이 부풀어 오른다고 느끼는 여자 무용수,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와 정신적 쓰레기들이 전이돼 한쪽 몸이 떨리는 강남 부유층 청년, 갑자기 졸도하는 습관 때문에 결혼은 커녕 연애 한 번 못 해 본 미모의 미혼녀, 아내와의 불화로 내적 공허와 열정이 부족해 시달리며 스스로 고아라고 여기고 사는 중견 제조업체 사장... 이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 것일까.

심리상담 센터의 심리치유나 현대 의학의 약물 치료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고통을 오랫동안 치유해 왔던 저자는 이론이나 방법론 위주가 아닌 직접 경험한 임상사례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그들은 특수한 병을 앓고 있는 희귀한 사례가 아닌, 다양한 트라우마와 크고 작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다.

저자는 내담자들의 무의식 풍경을 영화처럼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겪는 단절감과 소외감, 불안과 공포, 허무와 절망감을 함께 아파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을 반추하며 그 고통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밝혀 나가고자 한다.

<판미동·1만6000원> /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싫어=김계미 시인의 세 번째 동시집. 감칠맛 나는 입말로 써서 더 재밌고 쉽게 다가온다. 아이들이 쓴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개성 있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는 최미란 작가의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이안 시인의 사랑스러운 해설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도북·1만1000원>

▲달님을 사랑한 강아지=최초의 공상과학 영화인 '달나라 여행'을 만든 프랑수아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에게 바치는 책. 한 편의 무성영화 같은 이 그림책에는 장면을 바꾸는 데 필요한 짧은 문장 이외에는 글이 거의 없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지양어린이·1만3500원>

▲MAPS=더욱 다양한 나라와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책보다 더 크고 아



름답게 업그레이드 된 특별판. 58개 나라의 지도 안에는 각 나라의 인구, 국가, 문화, 특산물, 유적, 랜드마크, 음식, 축제, 유명인사까지 다양한 그림들로 여행을 통해 느끼는 오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린북·2만9000원>

▲치고, 던지고, 달리는 야구의 모든 것=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야구의 역사, 문화 이야기이다. 야구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야구 애호가들의 재미에 빠지지 못한 친구들, 야구에 대한 더 많은 교양과 상식을 쌓고 싶어 하는 친구들까지 모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야구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계절·1만2000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 010-6838-1230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방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광양, ㅅ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나주, ㅅㅅ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